


공동체 소식



연중 제6주일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One Faith One Family One Future In CHRIST 캠페인 안내:** 캠페인 관련 영문 기도문을 미사 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 하는 캠페인 설명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평협회 안내:** 2월 17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Enflame Our Hearts” Convocation 2019 안내**
 교구 대회 참가자들은 교구에서 발송한 메일 참조하시어 본당 사전 모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Camp Tekakwitha 주일학교 여름캠프 신청(캔사스 대교구 주관):** 교육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등록 안내:**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육부에 등록을 시작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 **성지회수 안내:** 지난 성지주일에 가져가신 성지는 3월 3일(일)까지 성당에 마련된 통에 넣어주시시오.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22가정)

■ **구역조정합니다. 4개 구역으로 구역조정합니다. (게시판 참조):** 모임을 하기 편리하도록 구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월 구역모임을 해주시고 구역별 구역장 선출 및 구역 개선사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모임**
 2구역 : 김태중 예레미아 가정, 2월 22일 (금) 오후 7시
 7729 Mohawk Dr, Prairie Village, 913.638. 8847
 4구역 : 김동술 세레자 요한 가정, 2월 23일(토) 오후 7시
 5307 W.159th Ter. Overland Park, 405.974.0823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46	210	166	49
차 주	2	217	165	68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아네스)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차 주	김주연(세실리아)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차 주	차민서(임마누엘)	정예진(한나) 김지안(요한)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 마르티노, 조진환 베드로
차 주	이우영 가브리엘, 조진환 베드로

애찬 봉사자

금 주	2조: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차 주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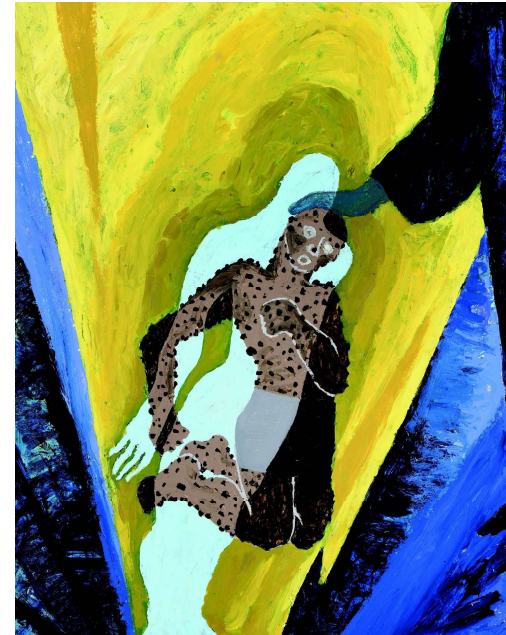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곳곳에서 주님께 탄원하는 가난한 이들과 박해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어, 분열을 일으키는 폭력과 이기심의 멍에를 벗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여 새사람이 되게 해주시도록 청합시다.

그림 묵상

나병환자의 기적
 사람들에게 내쫓기고 버림받은 나병환자의 간절한 애원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닦게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봅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17,5-8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복되다.>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2.16-20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7.20-26
 <그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생명의 말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 故 김정훈 부제를 기리는 유고집의 제목입니다. 산을 유난히 사랑했던 김정훈 부제의 안타까운 죽음 이전에 산장에 남긴 본인의 글이기도 합니다. 산은 성경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로 표현됩니다. 그렇기에 산은 기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평지보다 높은 곳이기여, 하늘에 가까운 곳이기여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 역시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루카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많이 언급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순간들에 앞서 예수님은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후에 당신의 공생활을 앞두고 기도하셨고(루카 3,21 참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루카 6,12 참조) 그리고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에서도 기도하셨다고 전합니다.(루카 9,28 참조) 잘 알려진 겟세마니에서의 기도 역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루카 22,41-42 참조)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또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흔히 행복과 불행선언이라고 부르는 루카복음의 말씀은 사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내용을 짚지어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과 부유함, 굶주림과 배부름, 웃는 것과 웃는 것 그리고 박해와 칭찬입니다. 가난하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지금 굶주리고, 지금 슬퍼하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반면에 부유하고 칭찬을 들으며,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이들은 불행합니다.

행복과 불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불행하다고 표현되는 이들은 실상 지금 행복한 이들입니다. 그들에겐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고 다른 이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지금 세상에서의 삶 역시 만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불행한 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재물도 칭찬도 음식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웃음으로 표현되는 기쁨 역시 부족합니다.

행복과 불행선언은 비유와 채움에 관한 말씀처럼 들립

니다. 행복한 이들은 지금 부족한, 그래서 하느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이들은 지금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하느님께서 채워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지만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이들이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보다 하느님을 바라는 사람들,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희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합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참된 행복입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늘과 실
삶의 아픔을 의미로 엮어줄
바늘과 실
그분의 바늘과 실은
위로와 행복
위로라는 바늘에
행복이라는 실을 꿰어
삶의 의미를 찾아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바늘과 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루카 6,21)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걱정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걱정입니다. 살기는 편해졌는데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요즘 세상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고 받는 돈의 대가가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도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하더라도 걱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걱정에, 거기다 상상의 걱정까지도 하게 되지요.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그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훗날 생각해 보면 벌써 추억이 되어 버려거나 '그땐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했는지 몰라...' 하는 생각을 하곤 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별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작년에 한 드라마에서 난생처음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역할이 부장검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나중엔 살인까지 저지르는 악역이라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산문집에서 읽은 이 글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이큐라는 스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 승려들을 모아놓고 편지 한 통을 내놓으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 편지를 열어보아라. 대신 작은 걱정거리로는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큰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 열어보아라.' 세월이 흐른 뒤 사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조아렸으나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이큐 스님의 편지를 열어볼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모두 모여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 단 한마디가 적혀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정호승,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중에서)

티베트 속담에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만 잘 붙들고 있다면 꼭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피할 길이 없을 때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길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길일 겁니다. 그 또한 주님의 뜻일 거고요. 혹시 이 순간 '그럼 내가 그동안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나?' 하고 또 걱정하실 분들도 계시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바로 당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최재원 요셉 | 배우

기도묵상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 아버지에게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 트리트리리 돈보멜슈빙 -